

Q&A

석공시관련 견교부 질의응답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Q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전문건설업종 건설공사 예시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외장공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는 제외),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공사 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석공사, 조각공사, 칠공사를만으로 행하여진 공사를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즉 상가 공사를 포함한 복합공사이거나 그 밖의 실내공사(미장, 방수, 도장, 창호)를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는 해석인지 확인을 원하며, 민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타입증을 수행할 수 없다면 실내건축업자 업체가 다른 전문공사면허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자에게 법으로 정한 이외의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일반건설업자는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에 대해 질의자 의견이 맞는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자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때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6 나목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6월 또는 위반한 하도급금액의 6~24%의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Q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해석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저는 국립대전현충원 공무원으로 현충원에 안장되는 호국선열의 석비(비석, 상석, 묘돌래석등)의 건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비공사의 경우 석공사(전문공사)이외에는 다른 면허로 묶기가 합하여, 지금까지 석공사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도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석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의 경우 대부분 하천의 호안블럭이나 석축이나, 건물의 외부 석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석비건립의 경우는 석물을 제작하는 석조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급자는 발주처에 통보를 하지 않고 시공참여지리는 명목으로 석비제작자에게 석비의 가공 및 각자를 맡기고, 도급자는 설치만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공사 관리에 예로가 많이 있습니다. (석비건립공사는 년중 지속공사)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비를 가공하고 각자하는 부분을 정식 하도급자로서 발주처에서 관리하고, 도급자는 설치만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공사의 경우도 정식하도급을 인정하여 발주처에서 하도급자를 관리할수 있는지와 2. 비건립을 석공사로 묶지 않고 일반(토목)공사으로 제한하여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A

1. 전문업자가 원할 시 면허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 및 제조는 원칙적으로 건설공사가 아닙니다. 2. 일반적으로 발주처는 법8조, 16조에 따라 계획관리 조정이 필요한 것이나 여부에 따라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샌드크래커 도입 모래폭풍 잠재울까

제주건설업 '모래폭풍'에 좌초위기

해결기미를 보이던 제주도내 모래수급이 다시 안개 속에 빠졌다. 일단 도내 모래반입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진도군의 양인섭 군수가 환경·시민단체들의 항의방문에 "신안군과 해남군이 골재수급조절을 생각하고 허가를 중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허가기간과 양을 줄여 충격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하지만 진도지역 주민과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진도사람연대회의는 최근 공약사항 등을 이유로 허가유보 조치를 강요하게 요구하고 있어 모래수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진도군수의 공약사항이 재정수입확대에 기여하는 반면 해양오염과 생태계파괴 등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있다는 데 동의한 바 있다.

또 진도사람연대회의는 "3년전 진도군과 신안군이 골재채취업자와 공동의 회한 여수수산대 환경오염조사 등 용역결과가 나오는 2003년 6월까지 허가 불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 골재채취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해안 일대에서는 모래채취와 관련된 어민, 업자, 기관간 갈등이 여러 차례 불거져왔다.

지난 6월에는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어업에 방해된다며 선박을 동원한 모

제주도내 모래소요물량

래채취 저지에 나섰는가 하면 목포와 태안군 일대 시민환경단체들도 바다모래채취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적하는 등 모래생산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제주지역 모래반입량은 전년 진도군 일바다 5개 관구에서 채취되는 연평균 110~120만㎥에 이른다. 또 내년 3월까지 도내 소요 예상물량은 45만㎥가량이다. 진도군이 지난 8월 결정과 최근 진도군수의 입장표명을 그대로 할 경우 올해도 남은 소요량은 별 무리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진도군측으로부터 바다모래 5만 톤을 비롯해 규사 22만15천 톤을 들여오게 된다. 하지만 최근의 모래

파동을 대변하듯 지난해 대비 16.6% 정도 가격이 올라 1루배(1.6톤)당 진도산이 1만4천원, 인천산이 1만8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부터이다. 도내 모래반입 지역 중 하나인 신안군 등은 이미 바다모래채취를 불허했고 채취연장 결정을 한 진도군 역시 생산량을 5백만 톤 배에서 2백만 톤으로 줄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 이래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도내 건설경기에 벌써 준비입이 예고된다. 지난 7월경 상반기 건설공사도급액이 352억에 271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1%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9월 들어서는 건설경기 호황을 선도한 주택부문 수주가 급감세로 돌아섰다. 건설산업연구원은 4/4분기 수주물량이 13.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과인공급이란 측면도 있지만 모래주산지의 채취량 감소와 제한은 공사 지연과 물류비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도 현재로서는 포퓰한 수가 없다. 바다모래 공급선을 전라도 지역에서 인천 등지로 바꾼다고 해도 물류비 상승은 물론 모래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이에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지역에

서 필요한 바다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진도군측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최근 골재채취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강화되면서 제주지역의 상황이 더욱 어렵다"며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 자유무역항 개발 등 민간 건설공사 수요 급증 등에 따른 연간 170만㎥ 정도의 모래수급에 협조해달라"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제주지역의 경우 담장 다른 지역의 모래를 반입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들고 있다.

도내 일부 건설업체들과 언론 등에서 "중국모래"의 도입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H 업체 등에서 중국산 모래를 도입하고 있다. 일단 건축용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레미콘 배합 등 건축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입도(과기)가 큰 중국산의 중·상류층 골재의 모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하류층의 세사(細砂)가 주를 이루 국내산 질에 못미친다는 평가다.

게다가 운반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현실이다. 또한 건설업체에서 따르면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산 모래는 주로 골프장 방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대 내분 석공사 시비로 법정간다

교수협 '부정의혹' 제시 학교측 '명예훼손' 대응

양형일 총장의 학교 경영방식을 둘러싼 조선대 교수들간 반목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조선대 교수협의회(의장·최종환)가 학교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5가지 청구항목에 기하는 문건을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들 의혹에 대해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양총장과 보지 교수들은 "별다른 근거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교수협 관계자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교수협의 주장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학교 중앙도서관 신축 석재공사(공사비 17억원)를 하면서 시방사에 적합한 국내산 돌 대신 절반 값에 불과한 중국산 돌로 시공했다"고 밝혔다. 또 "2003년 3월 캠퍼스에 계약서에는 왕벚나무를 심기로 돼 있으나 실제 절반 값에도 못미치는 산벚나무를 심어 배합 등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속병원에서 반이아 할 임상교수 급여 15억원을 부속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비로 쓰게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총장이 미국 휴스턴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도 1989년 복직을 위해 행정학 박사과 표시했다"며 행정학박사 학위 명칭 사용금지 가져본 신칭도 냈다.

박의장은 "양총장 취임 이후 각종 부정의혹이 제기되고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무시돼 교수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대응 학교측은 이와 관련 긴급재판장 회의를 갖고 "교수협의회가 학교 명예를 훼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각종 공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고, 양총장 학위 명칭도 실질적으로 행정학을 전공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내년 11월로 예정된 총장 선거와 관련해 교수협의회 일부 임원들이 현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나마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미국건설호황 석재업계 "파란불" <면에서 계속>

지난해 중국의 마감석재는 미국시장에 깊숙이 침투했다. 특히 웨스트 코스트는 중국의 확장세의 고무보가 되고 있다. IT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은 커지고 있다. 다소 실험적이기는 하지만 이태리에도 이미 확확한 상태다.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등의 석재산업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미 자국산 석재제품과 원자재들이 호황을 누린 바가 있고 현재도 일정 수준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석회암, 스페인의 대리석, 화강암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국가들은 확실한 소비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은 석재의 특성과 모양 등에 따라 특별한 선택을 하는 이상적인 미국 소비자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다. 이태리의 포르투갈의 대리석과 노르웨이의 화강암과 대리석등도 마찬가지이다.

석재산업은 몇몇 국가에서 발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중동과 지중해 남해안지역을 들 수 있다. 이곳은 해상교역이 발달한 지역으로 시리아와 이집트가 현재 연속성을 가진 나라로 꼽힌다. 이 지역은 잠재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과 가자지역과의 교역은 마비돼 있다. 따라서 이곳의 석재는 개발이 무척 힘든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렇질 않은 곳과 단순 비교한 결과일 뿐이다. 이곳 역시 부의 축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은 경제활동이 주체이다.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 또다른 나라들도 있다. 맨 처음으로 이란을 꼽을 수 있다. 이란은 국제적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이다. 또 석재와 생 산국이며 소비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 지역들은 항상 미래가 불투명해왔다 잠재적인 군사위 위협의 우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아주 독특하다. 생산국이라고 보기는 소비국에 가까운데 최근 완 화되기는 했지만 수입장벽이 높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석재 생산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편, 중국은 석재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이다. 생산분포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 주도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p>'석제인' 신문</p> <p>창간을 축하합니다</p> <p>(주) 장동석재 대표 노군자 전북 익산시 남산면 구평리 979-51 ☎(063)858-8474~5, (063)858-8473</p>	<p>동아대리석(주) 대표 오재남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1 테리코스빌빌딩 6층 ☎(02)569-8461</p> <p>(유) 형진석재산업 대표 이인형 전북 익산시 함열읍 석해리 52-19 ☎(063)861-0136, (063)862-0136</p>	<p>동남석재 대표 이정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죽동 780-2 ☎(02)381-0739, (02)381-0728</p> <p>청암석재산업 대표 황해옥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5 ☎(055)943-2653, (055)944-3609</p>	<p>삼지석재공업(주) 대표 김명달 서울서 강북구 수유1동 472-474 ☎(02)981-0027, (031)543-1541~3</p> <p>남방석재(주) 대표 김원규 경남 마산시 산호1동 307-1번지 ☎(055)241-2186, (055)241-2609</p>
<p>조양석재(주) 대표 김성태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15-1번지 ☎(051)505-7852~3, (051)972-1999</p>	<p>(주) STONE KOREA 대표 양진호 경기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 390 ☎(031)535-5273, (031)536-4100</p>	<p>동국석재조각예술원 대표 김성수 경기 포천군 영중면 성동5리 822-2 ☎(031)531-8736, (031)531-5549</p>	<p>모동기업사 대표 강종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95-1 ☎(055)944-5382, (055)942-5382</p>